새로운 조경수
- 복자기나무 -

이 원 열／임업연구원 환경생태 연구실장(임업연구관)

國名 : 복자기나무
學名 : Acer triflorum Kom.
英名 : Triflorum Maple
漢名 : 鬼目藥木, 紐箱子
日名 : オニノメダスリ

복자기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며 나무높이 15m, 가슴높이 직경 60~70cm로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으로 강원도에서는 나도박달, 까치박달, 기슬박달로 경기도에서는 개박달나무, 황해도에서는 산참대라고도 부른다. 주분포지는 수평적으로는 전북, 경북, 강원, 경기, 황해, 평남북 및 함경남북도, 지리적으로는 만주에도 분포하지만 대개 중부이북 심산의 표고 100~1300m에 자생한다.

분류 및 생태적 특징을 보면, 잎은 마주나고, 3엽의 긴타원모양으로 계란형 또는 피침형(披針形)이며 잎가장자리에 2~4개의 큰 톱니가 있다. 가운데 소엽은 길이 7~8cm, 넓이 5cm이고, 잎자루는 5cm로 털이 있다. 꽃은 암나무와 숫나무에 각각 따로 피는 자웅이가화(雌雄二家花)이며, 5월에 가지끝에 3개의 꽃이 산방화서(散房花序)로 피며 꽃대에 갈색털이 있다. 열매는 날개모양의 시과(翅果)로서 9~10월에 익으며 길이 3~5cm, 지름 1.5cm이고 날개는 예각 또는 둔각으로 나란히 벌어진다. 수피는 회백색이고 가지에 붉은 빛이 돌며, 피목(皮目)은 흰빛, 동아(冬芽)는 흑색 난형이다. 이 나무와 외관상 유사한 것으로 복장나무가 있지만 잎의 가장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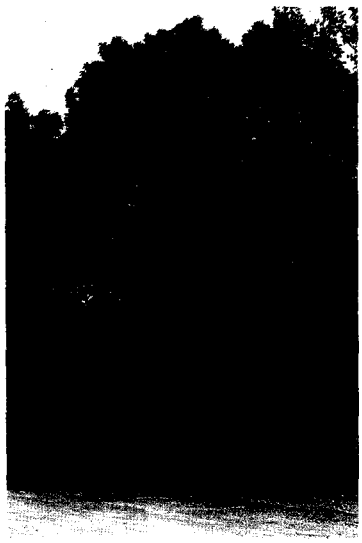
꽃 | 잎
열매 | 수피

에 가는 톱니모양의 거치가 많이 있는 것과 열매에 털이 없는것이 큰 차이점이다. 추위에 상당히 잘 견디는 이 나무의 생육환경은 고로쇠나무와 유사하여 그늘진 곳이나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건조한 사질양토에서도 잘자라며, 공해와 염해에 견디는 힘은 보통이다. 토질은 다소 습기가 있는 비옥한 사질양토나 부식질 양토가 적합하다.

번식은 주로 실생에 의한다. 종자가 건조하면 발아력을 잃으므로 열매가 갈색으로 변하였을 때 채취하여 2~3일간 물에 담갔다가 젖은 모래와 1 : 1로 섞어 노천매장을 한 후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파종량은 1㎡에 1ℓ 정도로, 종자의 품질은 순량율 97.5%, 발아율 42.6%, 효율 41.5%, 1ℓ당 520립, 1kg당 3,800립 정도이다. 파종된 종자는 당년에 15~20% 발아하고 다음에 나머지가 발아하며 비립성이므로 포장발아율은 매우 낮아 25~35%정도 된다. 종자가 발아되기 시작하여 6월중순경이 되면 해가림을 하여 가뭄피해를 막아준다. 1년자란 묘목은 10월말경에 굴취하여 가식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당 50~60본을 이식하여 2년간 길러 3년생을 산출한다. 기타 번식법으로 접목, 삽목, 취목 등이 있으나 실용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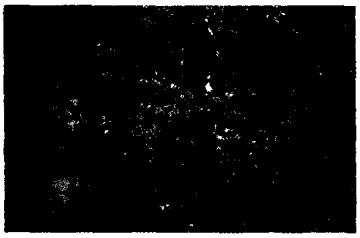
식재와 이식은 이른 봄 싹트기 전이나 가을(10~11월)의 낙엽진 무렵이 적당하며, 장소는 직사광선을 받는 곳이나 석양볕을 받는 곳은 단풍가치를 생각하여

복자기의 단풍이 드는 과정



8월하순경

9월하순경



10월초순경

10월중하순경

피하도록 하고 나무와 나무사이에 심는 것이 좋다. 뿌리는 잘 내리지만 가는 뿌리가 적으므로 이식과 동시에 지상부를 잘라 흡수와 증산균형을 유지시키고 큰 나무인 경우에는 줄기에 흙을 발라 주거나 새끼감기를 하여 건조를 사전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재구덩이에는 두엄등의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으면 좋다.

정지와 전정은 거의 필요없으나 묘목에서 성목으로 가꾸기에는 정형이 필요한데 대개 50~60 cm 높이에서 가지를 잘라 분지시키고 수관이 퍼지는 부정형으로 가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정시 주의할 점은 굵은 가지나 줄기는 도중에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가능한 자연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지, 엉킨가지, 마른가지 등만 선별하여 11~12월에 자른다.

병해로는 지고병, 엽고병, 흑문병, 백문우병, 탄저병, 조피병, 암종 등이고 충해로는 하늘소, 깍지벌레, 흰불나방 등이 있으나 큰피해가 없으므로 특별한 방제를 요하지 않는다.

조경적 가치는 단풍나무과 중에서는 가장 단풍이 붉고 아름다워 '가을나무의 대표'가 될 만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소재로 이용하기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특별하게 연구된 바 없으나 단풍나무과의 어느 수종보다도 조경용소재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나무이다.